

다산포럼



박종권
호서대학교시용합대학 교수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를 제작할 때만 해도 감독은 '워쇼스키 형제'였다. 이후 '워쇼스키 남매'가 됐다가 지금은 '워쇼스키 자매'이다. 성적 정체성은 접어두고, '매트릭스'가 공상과학영화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장자의 '호접몽'을 연상케 하는 구성, 시온(Zion)과 네오(Neo)를 통해 구약과 신약 세상을 버무린 내용 전개, 여기에 주인공 네오가 총알을 피하는 장면과 트리니티의 환상적인 공중 발차기. 영화는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세상이라는 디스토피아에서 인간 구원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밀레니엄 버그를 우려하던 1999년의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제작비를 제하고도 4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관객의 취향에 따라 기억하는 장면은 다르겠지만, 잠의 신 혹은 꿈의 신이라는

바이러스와 인간, 그리고 권력

뜻의 모피어스에게 스미스가 시온의 소재지를 묻는다. 여기서 시온은 고향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바빌론 강가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던 곳이자, 영화에 서는 인간성의 본연쥬 띤다. 이를 지키려는 모피어스에게 스미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야.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은 아니야. 한 지역에서 번식하면서 모든 자원을 소모해 버리지.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거야. 지구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번식하는 유기체가 하나 더 있어. 바로 바이러스야." 인간의 속성이 바이러스라는 거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질병이며, 지구의 암적 존재라는 거다. 인간에게는 조화가 아니라 파괴를, 상생이 아니라 공멸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속성이 있다는 거다. 듣기엔 불편하지만 한편으론 페부를 찌르는 대사이다. 끊임없는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우려에도 멈추지 않는 탄소 배출을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란 진단에 토를 달기 어렵다.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 바이러스는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하면서 번식과 진화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적인 인간을 숙주로 삼았다는 게 아이러니컬하다. 어쩌면 이역시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자연계에 형평을 이루려는 조물주의 치밀한 설정이라고 이쪽저기는 이들도 있을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아스텍 문명을 초토화시킨 건 총과 칼이 아니라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쿠바에서 천연두에 감염된 한 단 명의 노예가 1520년 멕시코에 상륙하면서 20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100년이 채 안 돼 1618년 160만 명으로 급감한다. 피사르가 단 168명으로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1531년에 페루에 상륙했을 때도 그랬다. 이미 천연두가 스페인의 총과 칼에 앞서 잉카인을 몰살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아메리카 인디언은 겨우 한두 세기 만에 95%가 멸절돼 사라졌다. 히스파니올라 섬의 인디언 인구는 1492년 약 800만 명이었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535년에는 0명이 됐다. 역사와 문화의 변곡점은 바이러스가 만든 셈이다. 이런 바이러스도 진화한다. 다이아몬드의 말

을 빌면, 매독이아말로 가장 잘 진화한 바이러스이다. 처음엔 성기만 아니라 머리에서 무릎까지 농양과 포진이 퍼졌고, 환자는 몇 달 내에 사망했다. 하지만 '권력층'으로 불리는 인간 바이러스의 탐욕에는 제도장치가 없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총선을 앞두고 마구 창궐한다. 봉사하는 서비스정신이 아니라 군림과 지배 유전자들 지닌 '권력층'이 최약과 차와 사이로 시민을 몰아넣는다.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비례 정당 변이종까지 가세한다. 이 바이러스는 건강하지 않은 정치의 식을 집중 공략한다. 지역감정에 손상된 면역체계, 빈부격차로 허약해진 체력, 색깔 편식이 초래한 영악결집을 끈질기게 파고든다. 정치 혐오를 조장하며 피아편 가르기로 기생한다. 다행히 예방과 치료 백신이 있다. 치료 백신은 바로 제대로 된 투표이다. 똑똑한 표가 치료제이다. 그럼에도 권력층은 변이를 거듭하며 생존을 모색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4년마다 창궐할 것이다. 그 래도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합심해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 투표 백신을 잘 투여하면, '권력층 정정지역'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NGO칼럼

광주형 일자리 위기, 정부·현대차·민주당이 나서야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상생'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GGM이 현대차 하청공장으로 전락할 위기를 불러온다. 그동안 노동계는 시에 핵심 의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시는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다. 더구나 '노사 상생'의 주체인 노동계와 현대차의 만남조차 아예 없었다. 현대차는 시에 만 기업 입장을 전하였으며, 시는 노동계와 만나도 현대차 대변인 역할을 하는 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나 소통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시민사회가 '사-정(현대차-광주시)'끼리 폐쇄적으로 비밀 협상을 이어왔다는 비판을 하고, 노동계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에 명시된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 협력'과 전혀 상관없이 광주시가 먼저 협정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기존의 노사민정 협약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협의가 없지만, 민노총과 시민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새로운 새판 짜기와 새로운 틀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광주시가 노동계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노사 상생'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현대차와 정부, 민주당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과 노동계, 지방 정부를 넘어서 대통령이 발안했던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극히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지난해 1월 31일 현대차가 광주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GGM 법인 설립으로 이어졌다. 시와 협약서가 체결될 때까지 현대차의 협상 진행자는 정부와 국회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역할을 하는 대관사업 사장단이었다. 정부가 현대차와 광주시 사이에 가교 역할을 주도하였고, 현대차가 참여하게 된 결정적 배경도 정부 의지였다. 현대차는 정부 의지 동참 차원으로 받아들이며, 사업 취지나 핵심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며 그 실행에 기여이 한번 해보자는 의지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 현대차가 노동계와 만나지 않는 것도, 대화나 소통의 필요성을 단 한 번도 보여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군사를 일 부라도 빼내야 할까? 아니면 신립을 도와 싸워야 할까? 김여물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남한강에 뛰어난 신립의 뒤를 따랐다. "장교는 마지막에 먹는다."(Officers eat last) '미 해병대는 어떻게 하여 세계 최고의 부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병대 퇴역 장군 플린의 답변이다.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 해병대의 식사 시간에 병사들이 먼저 먹고 장교는 나중에 먹는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는 국민을 울렸다. 그는 탄금대 앞 달천 평야에 진을 쳤다. 부하 장수들이 만류했지만 기마 전술을 시도하기에 좋다고 했다. 때는 6월, 장마철이다. 물이 가득 찬 논이라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었다. 김여물, 그는 신립이 종사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간청하여 참전했다. 신립이 부장들과 함께 조령(鳥嶺)의 형세를 정찰할 때, 그가 다음의 의견을 냈다. "저들의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칠 수 없습니다. 이곳의 협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신립은 반대했다. 그는 패전을 예견하고는 아들 김류에게 유언을 남겼다. 전투에 패할 것을 예견했다면

기고

탄금대 전투의 교훈



고병균
수필가

도를 습격했을 때 북병사(北兵使)였던 그는 부하를 데리고 도망갔다. 반면 조산만호(趙山萬戶) 이순신(李舜臣)과 경흥부사(慶興府使) 이경록(李慶祿)은 도망가기를 거부하고 맞서 싸워 물리쳤다. 이 일은 도망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순신을 모함했다. 이 일은 장기군관 50명을 이끌고 갔으나 20명의 도망자가 속출했다. 병사는 현장에서 징집했는데, 목표 인원 50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800명이었다. 그중에서 도망하는 자가 나왔다. 그는 상주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여 충주의 신립에게로 왔다. 여기서도 패하자 단기로 탈출했다. 황해도와 평안도로 도망치면서 조선의 양민을 죽이고, 그 시체를 왜 병으로 위장했다. 상투를 일본식으로 틀고 목을 베어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다. 1593년 1월 6일 평양 전투에도 참전했는데, 김응서와 함께 왜군의 수급을 열심히 모았다. 다음은 신립, 그도 싸움터로 떠날 때, 따르는 자가 없었다. 대신 유성룡이 모집한 80명을 이끌고 나아갔다. 그가 은성부사(穩城府使)였던 1583년 여진족 니탕개(尼湯介)가 쳐들어 왔다. 그는 기병 500여 기를 동원하여 점사신상절(申尙節)과 함께 적 1만 명을 물리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군사를 일 부라도 빼내야 할까? 아니면 신립을 도와 싸워야 할까? 김여물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남한강에 뛰어난 신립의 뒤를 따랐다. "장교는 마지막에 먹는다."(Officers eat last) '미 해병대는 어떻게 하여 세계 최고의 부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병대 퇴역 장군 플린의 답변이다.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 해병대의 식사 시간에 병사들이 먼저 먹고 장교는 나중에 먹는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는 국민을 울렸다. 그는 탄금대 앞 달천 평야에 진을 쳤다. 부하 장수들이 만류했지만 기마 전술을 시도하기에 좋다고 했다. 때는 6월, 장마철이다. 물이 가득 찬 논이라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었다. 김여물, 그는 신립이 종사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간청하여 참전했다. 신립이 부장들과 함께 조령(鳥嶺)의 형세를 정찰할 때, 그가 다음의 의견을 냈다. "저들의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칠 수 없습니다. 이곳의 협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신립은 반대했다. 그는 패전을 예견하고는 아들 김류에게 유언을 남겼다. 전투에 패할 것을 예견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를 선거로 선출한다. 후보자 중에는 이일과 같은 후보자, 신립과 같은 후보자, 김여물과 같은 후보자 등 세 부류가 있다. 이들 중 누구를 선택할까? 그것은 유권자가 결정한다. 나는 미 해병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규칙을 따르기를 원한다. '나중에 먹는 해병대의 장교와 같은 자' 그에게 투표하려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임진왜란과 같은 슬픈 역사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탄금대 전투가 가르쳐 주고 있다.

社說

박 대표 '광주형 일자리' 헤쳐나갈 수 있겠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원인으로 합작법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전문가인 주요 임원들이 노동계와 상생 노력은 커녕 고액 연봉 책정 등 엇박보다는 잣밭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엇그제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배임·횡령으로 유죄가 받았던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보은 인사 의혹이 짙다'는 것을 또다시 거론했다. 비전문가들이 주요 임원에 선임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청와대에 박 대표 등 주요 임원을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와 부대표 등 상임 이사의 통합 연봉을 최대 3억 8000만 원으로 한정하

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한 '임원 임금 노동자의 두 배 이내 책정'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적정 임금'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당장 노동계는 "노동자 연봉 평균 초임은 3000만 원 수준으로 정해 놓고, 대표 등 임원은 수억 원대 임금을 가져가는 게 말이냐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박 대표 선임을 반대해 왔던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엔 광주시청 내부에서 조차 간부들을 중심으로 박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박 대표 등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노동계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박 대표 등 경영진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종식' 선언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로 줄며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해외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 한 달 가까이 자체적인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칫 방심하기 쉬운 때다. 하지만 일부에서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엔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광주 북구 흥흥동 주민 A(29)씨가 자택에서 벗어나 충청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광주 북구보건소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충청 지역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 다시 광주 자택으로 이송한 뒤 격리 조치했다. 광주시는 A씨에 대해 격리수칙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의 대형 교회는 물론 광주지역 일부 교회에서도 휴일 집단체회를 여전히

이어서다. 휴일인 지난 5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지만, 광주 개신교회 200여 곳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점검 결과, 이날 광주 1451개 개신교회 가운데 205곳이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5일까지 시행하길 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격리 지침을 어긴 일부 이탈자들이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도를 아무리 강화해도 이처럼 당사자가 지키지 않으면 어렵사리 쌓아 올린 방역의 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조금 힘들더라도 '코로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격리 지침이나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그 사람은 나무를 나무라 말하고, 나무를 친구라 부르던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나무도 나무로 한평생을 살며 스스로 나무라는 것이, 그리고 나무라는 이름이 한없이 좋았다." 소설가 이순원의 소설 '나무'의 주인공은 할아버지 나무와 작은 나무이다. 백 살쯤 되는 늙은 밤나무와 여덟 살쯤 되는 어린 나무는 계절이 수십 년 바뀌는 동안 나무를 처음 심은 '그 사람'을 비롯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나무의 이야기지만 사람의 인생과 하

안감을 쥐고 있는 구민들에게 첫눈이 내린 날 할아버지 나무는 세상을 떠나며 교감을 나눴던 '그 사람'을 떠올린다.

작가는 100년 전쯤 배웠던 어려운 시절에 다섯 말의 밥을 당장 먹어 치우는 대신 민동산에 모두 심었던 할아버지의 실재 이야기를 우화(寓話)소설로 썼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할아버지와 그 나무는 내게 사람과 나무가 오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으며, 한 그루의 나무가 우리 인생의 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소설처럼 누구나 자신과 마음을 주고받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반려 식물’

만화방장(萬化方暢)따뜻한 봄날이 만물이 나서 자람)의 계절이다. 온갖 꽃들이 앳다투어 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겨울을 이겨 낸 나무에서 돌아나는 연초록 새 잎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코로나19로 무거운 마음에 봄 햇살을 받아 발산하는 생명의 빛같은 눈부시거조사 하다. 반려식물을 집안에서 기르고, 반려나무를 직접 심거나 또는 마음에 품으며, 엄축한 코로나19 우울증을 이겨 내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